

I=I, Idea, Invention

지금은 I 이론시대(11)

작은 것의 소중함

“한 시간에 백만원짜리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뭐... 뭔데?”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채용하는 건데... 만만한 일이 아니야.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겠니?”

“힘좀 드는 게 대수냐?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비가 시시결렁했는데 잘 됐다. 한 번 하고 한 삼일 푹 쉬지 뭐?”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소개해주지. 일은 간단해. LA발 첫 비행기가 뜰때까지 뒤에서 힘껏밀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뭐?”

한탕주의. 굵고 짧게 살겠다는 인생론이 어찌다 그리 변질됐는지, 한 번에 큰 것을 노리겠다는 위대한 생각들이 늘고있다.

“박리다매? 그런 미련한 짓을 뭐하러 하나? 하나를 팔더라도 이윤이 크게 남는 것을 택해야지. 코홀리개가 내놓은 백원짜리 동전 모아서 어느새 부자가 되겠어?”

어느 면에서 일리가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한 걸음에 일미터씩 걷는 황새를 뱀새가 따라가려면, 비디오를 초고속으로 돌리

듯 종종걸음을 쳐야 할테니 말이다. 이런 이론으로 국가에서도 선진기술개발 및 중화학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 아닌가?

But, 그러나 큰 떡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 일정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성급하게 큰 일에 매달리다간 본전도 못 찾고 폭삭 망하기 딱 알맞다. 큰 성공을 꿈꾸다가 오히려 더욱 큰 실패의 구렁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일단은 작게 얻으려는 자세로 시작하라. 그렇다고 꿈마저 작게 가지려는 것은 아니다. 꿈은 원대하게 갖되, 무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처음 발명에 뛰어드는 사람은 위대한 발명가들의 업적에 사로잡혀 큰일을 저지르고 만다. 그것은 구매자의 구매욕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오이다. 구매자는 상품의 규모가 크면, 대개 구입을 망설인다. 큰 상품의 경우 보통 가격이 비싸고 취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당연히 상품의 순환이 더디고, 성공확률이 낮아진다.

이런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이용한다면 작은 규모의 상품 개발이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작은 것을 노리는 사람이 적으니, 그만큼 개발의 구역이 넓고 경쟁도 훨씬 수월하다. 그야말로 초보자에게는 안성맞춤인 것이다.

소규모 상품 개발은 그 잇점만큼이나 그 응용 분야가 다양하고 변화무쌍하다. 큰 것을 작게 하거나, 세트 상품을 나누어서 작은 단위로 파는 것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림물감이나 크레파스 등은 셋트로 판매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다. 커다란 케이스에 글색, 하늘색, 금색 등 갖가지 이름을 붙인 크레파스가 빼곡히 차있다. 싹든 좋은 소비자는 24개 혹은 12개 단위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이가 특별히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 크레파스가 금방 동이라도 나면 참으로 난처하게 된다. 모자라는 몇 가지 색을 위해 한 세트를 새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꼭 필요한 색을 안쓰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다.

해결 방법은 하나. 낱개 상품을 만드는 일이다. 파랑이나 빨강, 노랑 등의 가장 쓰임새가 많은 색을 중심으로 낱개 판매를 한다면, 앞서 말한 고충은 말끔히 사라진다. 그뿐 아니라 아동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외국에선 벌써 오래전에 상품화되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소형으로 포장되어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화장지나, 엘범, 화일 등의 속지 판매 등도 있다. 또한 지금은 쉽게 찾아 볼 수 없지만, 포장마차에서 한 잔씩 팔

던 소주나, 몇 개비씩 뜯어서 팔던 개피 담배, 한 개씩 판매하던 사탕들이 어려운 시절을 지탱하던 소규모 상품이였다. 지금은 너무나 생활이 풍족해서 소규모로 포장된 상품을 찾는 추세로 상황이 바뀌었지만, 어쨌건 작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전히 쓸모있는 일인듯 하다.

먹는 음식에도 소규모 상품 응용은 가능하다. 판으로 파는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등분하여 파는 피자는 간단한 것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수도 작은 병에 담아 간편하게 가방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 매출을 늘리고, 채소도 판매 단위가 킬로그램에서 그램으로 바뀌면서 소량으로 현대인의 성향에 발맞춘 멋진 아이디어 상품들이다.

분할 판매의 보람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중년의 사나이를 울리는 탈모증, 일명 대머리. 이 고민거리의 유일한 대책인 가발에도 분할 판매는 척척 맞아 떨어진다.

대부분의 탈모증은 부분적이다. 소위 속알머리가 비었다고 일컬어지는 중앙 탈모증, 주변머리가 사라지는 형, 혹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원형 탈모증 등, 전체 가발을 쓰기에는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너무 아까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부분 가발. 핀 등에 인조 머리카락을 부착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살짝 꽂아주는 것만으로 만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조 머리카락을 내 머리인 듯 자연스럽게 빚어서 위장시키기만 하면 대머리는 없어지고 근사한 신사가 등장하는 것이다. 가

격은 물론 전체 가발에 비하면 병아리 눈
뿔같은 수준이고, 전체 가발을 쓸때 느끼는
답답함도 없으니 일석이조, 핼먹고 알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작은 상품을 쩌쩌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그 생각이 쩌쩌한 사람이 분명하다.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이웃인 일본
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생각할 때, 작
은 상품의 개발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
라는 결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론 작은 것이 더 가치 있는 법이다.

자, 선택하라. 커다란 솜뭉치와 작은 금덩
이. 이 중에 당신은 무엇을 택하겠는가?

곤란한 일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일의 반이 진행될 정도로 수월해진다
는 뜻도 되겠지만, 그 보다는 시작이 일의
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리라.

발명에서도 시작은 가장 중요하며 어려
운 단계이다. 무엇을 발명할 것이가를 정하
는 일이야말로 창의적 사고력과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명의 시작은 아주 구체적인 일에서부
터 비롯되는 것이 좋다. 너무 포괄적인 주
제는 자칫하면 방만하고 무계획적인 진행
으로 흐르기 쉽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분
야이거나, 한 두번쯤 접해본 것, 그 대강을
집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곤란
한 일'이 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부딪

히는 불편과 곤란한 점, 내가 직접 겪어 그
부당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또한 매우 구
체적인 일과 사건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란했던 일을 금방
잊어버린다.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
쳐 지나가 버리고, 피해가려고만 한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여, 혼자 혹은 여럿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해보자. 때론 '곤란한 일'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아이디어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곤란한 일'은 대개 모든 사람이 공유하
는 부분이다. 내가 불편하다고, 혹은 곤혹스
럽다고 느끼는 일은 대부분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점들이다. 따라서 만약 이 '곤란
한 일'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
만큼 많은 이에게 지지를 얻게 된다. 성공
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여성
에게 매달 찾아오는 달손넘은 여간 곤란한
존재가 아니다. 반감지 않지만 반드시 치러
야만 하는 월례 행사. 그래도 요즈음은 좀
형편이 나은 편에 속한다. 생리대라는 편리
한 위생용품이 있으니...

30여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여성들은 천
기저귀로 달손넘을 맞이해야 했다. 이로 인
해 여성들이 겪었을 불편은 감히 말로 표
현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어떤 이는 달손
넘이 찾아드는 기간엔 움짱달싸도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하니, 그 고충을 짐
작할만 하다. 불안함과 거추장스러움, 여성
의 움직임을 묶어두는 '곤란한 일'이었다.

못여성이 함께 겪는 곤란한 일을 해결하
기 위해 뛰어든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무
원이었던 사카이 여사. 그녀는 자신이 겪는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이 귀찮고 처치 곤란한 손님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사카이는 동료의 충고를 귀담아 두었다가 종이로 새로운 위생용품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흡수력이 뛰어난 종이류로 천기저귀를 대신한다면 위생상에도 문제가 없고 움직임도 더욱 편해질거야. 한번 쓰고 버리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녀는 자신이 매달 느꼈던 곤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그대로의 제품을 고안해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여성위생용품인 ‘안네’.

안네는 수줍은 여고생부터 많은 자녀를 둔 중년 부인에게까지 조용하게,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일본 그리고 마침내는 전세계로... 온 세계의 여성을 불안으로부터 훌륭하게 구출해낸 것이다. 물론 사카이는 여성 해방자도 길어 남게 되었다. 만약 사카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카이의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세계적인 만년필 메이커인 워터맨의 경우에도 자신이 겪은 곤란한 일에 관심을 두어 성공한 케이스

“불길해서 안 되겠소.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저 선생님, 펜에서 잉크가 흐르는 일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건 정말 아무일도 아니라고요...”

“어쨌든 불길하군. 하필이면... 하여간 관두겠소”

보험 외판원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워터맨에게 보험 계약 체결은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 계약을 마약 성사시키려는 순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다니... 그것도 펜에서 잉크가 떨어져 번졌다는 하찮은 이유 때문에... 워터맨은 심한 허탈감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은근히 오기가 발동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다니! 기필코 새로운 펜촉을 만들고 말겠어!’

워터맨의 목표는 잉크가 흐르지 않는 펜촉의 개발, 누구나 겪는 곤란이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스쳐버린 주제였다.

그는 펜촉에 구멍을 뚫고 그 끝을 미세하게 갈라놓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했다. 이 아이디어로 그가 얻은 이익은 천문학적 숫자, 자신의 곤란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성공을 거머쥔 것이다. 이밖에도 ‘곤란한 일’에 관심을 두어 발명가로 성공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화단을 가꾸는 일에서 겪는 작은 불편에 관심을 기울여 탄생한 고마다의 튼나 달린 꽃삽이나, 쇼자에몽이란 작은 소년이 개발한 종려섬유 술이 바로 그것이다.

곤란한 일을 그냥 스쳐지나가 버릴 땐, 나를 골탕먹이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일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이 됨을 알 수 있다. 굴이 위수(양자강)를 지나면 탕자가 된다고 한다. 환영받는 굴이 될 것인가, 천대받는 탕자가 될 것인가하는 문제는 완전히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곤란을 어렵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 이용해보자. 때론,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함의 추구

과육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고 하던가? 맛있는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치명적인 비만을 초래하고, 재물에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이면 결국 사회와 격리되어 수감 생활을 하기 쉽다. 지나친 것치고 끝이 좋은 경우가 없는 것이다. 단 한 경우만 제외하고...

단 하나의 예외는 편리에 대한 추구이다. 발명에 있어 편리 추구는 끝이 있을 수 없다.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불편한 점을 고칠 수 없을까?

발명의 시발점은 뭐니뭐니해도 편의의 추구. 시도 때도 없이 발동하는 편의에의 집요함이야말로 발명의 원동력이다.

편리를 시도하는 개혁에는 성역이란 있을 수 없다. 한 가지도 빼놓을 것이 없고 필요치 않은 부분이 없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한 예로 들어보자. 비가 오면 몸이 젖는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우산. 비가 오면 가까운 동굴을 찾거나, 커다란 앞을 따서 비를 가리던 원시 사회의 경우를 생각하면 아주 귀중한 발명품임에 틀림이없다. 비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만 탁월하면 되니, 더이상 바랄것도 없는 완벽한 것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도 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인간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비가 억세게 쏟아지는 날이라도

우산만 받쳐들면, 뽕송뽕송한 채로 비의 낭만을 읊을 수 있는데 욕심맞게도 새로운 편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얼 바란 것일까?

갈대잎을 엮어 만든 도롱이에서 벗어나 대나무와 기름종이로 만든 우산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새로운 것이 가져오는 편리함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잠깐. 불편은 편리를 누르는 듯, 사람들은 종이 우산의 편리함을 깡그리 잊은 채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한다.

‘아아, 안되겠어. 종이 우산은 너무 수명이 짧아. 대나무 살이 부러져버리니 쓸 수가 있어야지...’

대나무와 기름종이로 만든 우산을 보며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린다. 차라리 비를 맞겠다고 결의라도 하는 듯, 작은 편리함에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해진다. 좀더 편리한 우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결국 비닐을 이용한 우산을 거쳐 방수처리를 한 천을 이용한 우산이 선을 보이게 되었다.

‘흐음, 잘 찢어지지도 않고 튼튼하군. 쓸 만해.’

불편을 해소한 사람들은 처음 우산이 나타났을 무렵처럼 잠시 잠잠하였다. 하지만 비단옷을 가지면, 비단 신발이 갖고 싶은 법. 더 좋은 우산이 없겠냐는 아우성과 함께, 의문과 불만이 고개를 들었다.

‘다 좋은데 크기가 너무 크단 말이야. 줄일 수 없을까? 들고다니기 편하게 작게 만들면...’

짐이 많은 학생이나, 만원 전철에 시달리는 회사원들은 걸리적거리는 길다란 우산에 눈총을 주기 시작했다. 우산을 들고 다니자니, 한 손이 자유스럽고, 걸핏하면 잊어버리기까지 하니 불편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만원버스에선 사람들 사이에 우산이 끼어, 달랑 손잡이만 남는 불상사가 연출되니 그들의 불편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가방에 쏘옥 들어가는 작은 크기의 우산, 남들의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되고, 우산을 추스리느라 진땀을 빼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이들이 이 불만의 소리를 놓칠리 만무하다. 눈깜짝할 사이에 삼단으로 접은 우산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한결음 더 나아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우산까지 개발했다.

자, 이제 우산의 진보는 끝이 난 것 같다. 생각해보라, 여기서 무슨 불편을 더 찾아낼 것이며, 더 추구할 편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모든 일은 그 추이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 완벽해 보이는 제품에도 더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 마치 미분을 하듯...

난 성질이 급해서 우산을 차근차근 접을 수가 없다구. 그냥 확 털면 모양이 잡히는 우산은 없을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문간에 서서 우산을 추스리던 이가 낯을 찡그린다. 제대로 모양을 잡으려면 우산의 날개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펴주어야 하는데, 그러자니 좀이 쑤신다. 결국 그는 되는 대로 우산을 들들 말아 쿡 쳐박는다. 그 모양이라니... 엉클어

진 배추단모양 배가 볼록 나온 우산의 꼴에, 그의 인상까지 구겨지는 듯하다.

이것이 바로 '더 편리'의 여지. 이 성급한 사람을 위해 우산에 퍼머넌트, 즉 영구 주름을 잡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우산으로선 또 한 번의 변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삼단 자동우산, 완벽한 방수 처리로, 물이 스며들 염려가 없고, 크기가 작아서 숙녀의 핸드백에도 감쪽같이 들어간다. 그 뿐만이 아니다. 버튼 하나로 활짝 펴지기도 하고, 일일이 손가락으로 천을 끄집어내 모양을 잡을 필요도 없다. 초기의 우산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이다.

이것은 모두 '더 편리하게, 덜 불편하게'를 끊임없이 외쳐온 결과이다. 이 조바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커다란 나뭇잎을 머리 위에 얹고 다녔을지도 모를 일이다.

편리함에 대한 추구는 인간에게만 허락된 욕심이다. 이것을 적절히 이용할 때, 인간의 발전이 보장받는다. 어찌면 판도라의 상자에서 뿔쳐나간 온갖 것들 중 유일하게 쓸모있는 것이 이 편리함에 대한 욕심일지도...

귀를 기울여보자. 눈을 크게 떠보자. 초감각의 인조인간 터미네이터처럼, 우리의 감각을 곤두세워보자. 사방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들려올 것이다. <왕연중記>

발특9709